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

행정학과 20230310 이예담

<목차>

1. 은둔형 외톨이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 강구의 필요성

2. 현재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 현황의 문제점

-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부족
- 2) 지원 조례의 부족
- 3) 지원 연령대의 한계
- 4) 상담 시스템의 문제점

3. 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제도의 우수사례

- 1) 정부 기관과 다양한 단체의 협력
- 2) 직접적인 상담서비스&공간 제공
- 3) 마음 건강 만들기 대책 사업
- 4) 사이버 청소년지원팀
- 5) 고위기 은둔 학생 학교지원 서비스
- 6) 영국의 서클(Circle) 프로젝트

4. 새로운 제도적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 1) 비대면 또래 상담 애플리케이션 '벗이랑' 개발
 - (1) 앱 개발의 필요성
 - (2) 범죄 수단 방지 방안
 - (3) 앱 화면&상담사 구성 방안
- 2)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1) 은둔형 외톨이 조사의 필요성
 - (2) 보건복지부의 정책 보완

5. 맺음말

1. 은둔형 외톨이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 강구의 필요성

국무조정실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라 1만 5000가구 응답자 중 2.4% 은둔 청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숫자로 계산해 보면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24만 4000명 규모로 추산된다(서유미, 2023.03.07.). 이는 절대로 적지 않은 숫자이다. 최근 발생한 '또래 살인', '신림동 칼부림', '서현역 흥기 난동', '신림동 성폭행' 사건들의 피의자들이 은둔 생활을 하며 사회와 단절돼 살아온 점이 공통으로 발견됐다. 이에 '은둔형 외톨이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말까지 나오며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5년 청소년위원회에서 발표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에 머물러 있다.

둘째, 진학 및 취업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셋째, 친구가 한 명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다.

넷째, 은둔 상태에 대한 불안감,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다섯째,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증도 이상의 지적장애(IQ50-55)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Korean Youth Counseling, 2005)(정근하·노영희, 2022:231).

이들은 사회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은둔·고립 경험이 있는 청년 403명 중 237명(59%)이 "은둔·고립을 중단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은둔·고립 상태로 돌아간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전혜진, 2023.07.31.).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끔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현황의 문제점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부족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과 고립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 가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행복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김혜원, 2022:2).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하긴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세워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접 도움을 주는 곳은 서울과 광주 2곳뿐이라고 한다(정근하·노영희, 2022:219). 지자체에서 세운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광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 대상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은둔형 외톨이의 수에 비해 지원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조례와는 달리 지원센터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확대한다면 은둔형 외톨이의 수를 감소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문화적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역마다 사회 구조나 은둔형 외톨이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 광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의 경우,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조례에 근거해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김동규, 2022.07.07.).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하나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할당받을 수도 있어 효과적인 정책 일부가 될 것이다.

2) 지원 조례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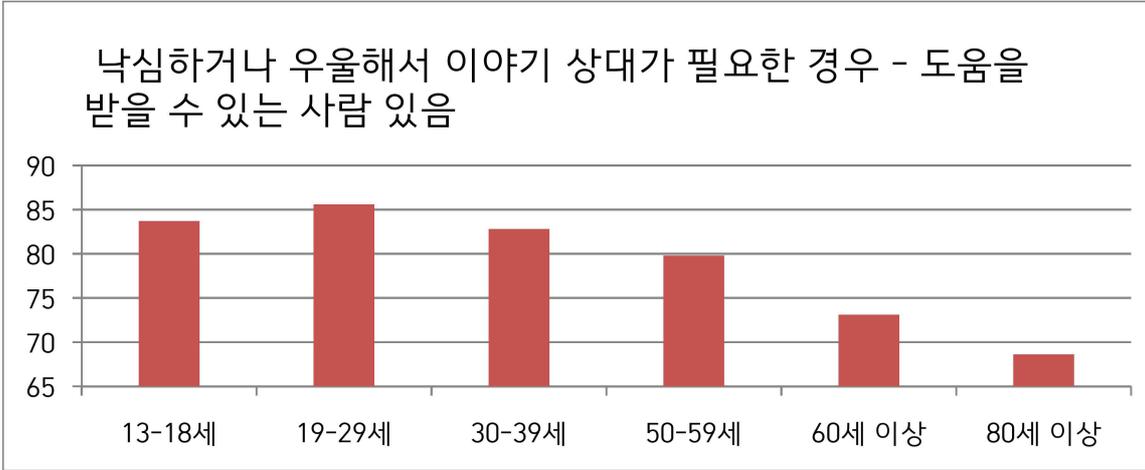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설치된 지역보다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 만약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지역에 거주할 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찾아가더라도 지역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지원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박진우, 2023.03.13.). 아래 표는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을 정리한 표다.

지역명	법령명	
서울특별시	본청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광주광역시	본청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본청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전라남도	본청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 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제정된 것이 아니다.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싶어도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지역에 관련 복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3) 지원 연령대의 한계

몇몇 지역에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돼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를 청년으로만 정해 둔다면 은둔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광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의 백희정 사무국장은 "청년들에게는 청년 도전사업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주곤 하는데 40대가 넘으면 해당이 안 된다"며 "직접 일자리를 소개하려 해도 40·50대가 재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김빛나, 2023.05.29.).



202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 결과에 따르면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문항에서 13~39세는 모두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50·60대 이상으로 넘어갈수록 확연히 감소하는 추세인 걸 알 수 있다. 위 통계 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중장년·노인층 주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의 수가 청소년·청년에 밀집돼 있다 하더라도, 중장년·노인층으로 들어선 은둔형 외톨이의 수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박대령 이아당 심리상담센터장은 "한국에선 은둔형 외톨이들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때가 IMF 사태 이후로 보이는데 이들이 은둔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40대 은둔형 외톨이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형선, 2021.08.06.). IMF 경제위기 때 젊은 나이에 취업이 되지 않아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 장년층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은둔형 외톨이를 청년층으로만 단정 짓고 있는 것 같아 연령대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4) 상담 시스템의 문제점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 신청자와 비교하면 전문 상담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상담 평균대기 시간은 2~3개월이라고 하는데, 무료 상담을 포기하고 사설 기관으로 상담을 받으려면 1회당 5~15만 원 정도라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적은 편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연속적으로 받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회성 상담'이라는 꼬리표가 달린다. 보통 상담사와 기관의 계약이 1년 또는 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한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다가 끊기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인력 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된다. 4년간 은둔 생활을 했던 나인채(남·26) 씨는 상담횟수가 보통 5~10회 정도로 고정돼 여러 상담소를 방문해야 했다. 그는 "상담사가 정해진 시간보다 5~10분 일찍 끝내거나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전문성이 의심 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전했다(박진우, 2023.03.13.).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문 상담 인력 확보를 통해 상담횟수 제한을 없애거나 더 확대해 나가는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

3. 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제도의 우수사례

1) 정부 기관과 다양한 단체의 협력

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에서는 정부 기관, 교육, 청년 지원기관 등 50개 이상의 공공기관, 자선단체와 지역사회 조직이 협력하여 단절된 청년을 지원하는 방식을 구축하였다(이순성, 박지선, 2022:35). 이러한 정책은 한 기관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몇 배의 정책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이며 전보다 더 다양한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여러 단체 및 조직이 협력하여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부 기관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정부 기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은둔과 고립에 지친 청년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환대하며, 땅 위로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두더지땅굴> 플랫폼(남경아, 2023.04.06.)을 정부 기관이 재정적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다. 정부 기관과 다양한 단체가 협력하여 은둔형 외톨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직접적인 상담서비스&공간 제공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등 본래 청년을 위한 사업 기능을 수행해 가면서도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상담 기관으로도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원스톱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들을 일본과 같이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 일본에 '지역유스프라자'라고 요코하마 시내를 4권역으로 나누어 히키코모리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기능도 수행 중이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히키코모리 청소년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면 청소년들 간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귄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정적인 공간에서 심리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3) 마음 건강 만들기 대책 사업

일본은 '마음 건강 만들기 대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범죄나 재해 등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PTSD나 가정폭력, 히키코모리, 등교 거부 등에 빠진 사춘기 청소년 등에게 보건복지활동을 펼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포함되는 사업은 네 가지로 ① PTSD 대책전문연수 ② 마음의 케어상담연수 ③ 사춘기 정신보건연수 ④ 마음 케어 상담 지방 연수이며, 이 중 히키코모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③ 사춘기 정신보건연수를 들 수 있다(김성아, 2021:154). 이 사업은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에 접어든 사람들의 주요 원인을 생각하여 만든 사전적인 대책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은둔형 외톨이가 된 사람들을 위한 사후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가정불화, 취업 실패 등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주요 원인에 초점을 맞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적인 대책 사업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은둔형 외톨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은둔형 외톨이 발생을 막기 위한 정책, 둘째, 이미 발생했다면 은둔의 장기화를 예방하는 정책, 셋째, 이미 은둔이 고착화되었다면 이를 구출하는 정책, 이렇게 세 가지 트랙이 마련되어야 한다(윤철경, 2023:6). 현재 있는 제도 중 사전적 조치를 하는 정책 사업은 사후적인 조치를 하는 정책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기 전 원인을 바로잡아 장기 은둔 생활자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막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사이버 청소년지원팀

홍콩 정부는 6~24세의 위기 청소년 및 은폐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청소년지원팀(CYSTs: Cyber Youth Support Teams)'을 구성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사이버 수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당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순성·박지선, 2022:57). 주로 인터넷 생활이 익숙한 은둔형 청년들에게 이 방법은 서비스 참여 설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면으로 먼저 다가갈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먼저 접근을 시도해 보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 방안이 될 수 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면 은둔 위기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5) 고위기 은둔 학생 학교지원 서비스

홍콩에서 은폐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시작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홍콩기독교복무처의 '고위기 은둔 학생 학교지원 서비스'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와 협력하여 스크리닝 체계를 구축하고, 은둔 학생을 초기에 발견하여 은둔 생활로의 전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기 은둔 생활을 막기 위해 은둔 생활 초기에 잡는 것이 이점인 듯하다. 동기부여가 낮고, 출석률이 불안정하며 생활적인 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적으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다(이순성·박지선, 2022:59).

6) 영국의 서클(Circle) 프로젝트

목차 2-3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대다수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대상이 청년에 맞추어져 있다. 이에 은둔 생활을 하는 중장년·노인층에 대상을 맞춘 해외 사례를 찾아보았다. 2007년 영국의 민간단체 '파티시플(Participle)'이 시작한 '서클(Circle)'은 더 대담한 사회 혁신 프로젝트다. 서클이 가져온 변화는 적지 않았다. 2009년 서클이 공식적으로 문을 연 뒤 서더크에 서만 1만 4600시간의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졌고, 17만 5000명이 참여했다. 회원의 88%가 새로운 친구(평균 6명)를 사귀었고, 불필요한 공공 서비스 이용도 줄었다. 회원의 26%가 의사를 덜 찾게 되었다고 한다(윤찬영, 2018.05.07.). 이 프로젝트는 외톨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준다.

예를 들어 '소셜 캘린더(Social Calender)'라는 이웃들과 점심을 함께하거나 극장에 같이 가게끔 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서클에서 이어 준 인연이 계속 이웃 간 도움을 주고받도록 해 준다. 서로 도우미 역할을 하여 상호작용하고, 서클의 회원이 된다면 스마트폰이나 책을 구매할 때 할인이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클 모델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김지영, 2023.02.14.).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정에서 서클 프로그램 도입을 확대하여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장년·노인층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4. 새로운 제도적 개선 방안과 기대효과

1) 비대면 또래 상담 애플리케이션 '벗이랑' 개발

(1) 앱 개발의 필요성: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 은둔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3) 앱 화면&상담사 구성 방안: 여기서 은둔형 외톨이 친구의 말을 들어 주고, 올바른 조언 등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또래 상담자의 화면에만 가이드 채팅이 보이게 된다. 비대면 또래 상담은 점차 학교생활에 다시 복귀하거나 다시금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또래 친구가 도와주는 것이 현재 있는 상담 제도와 차별되는 점이다. 많은 학생이 또래 상담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의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로 참여시킨다면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먼저 또래 상담사로 활동하기 전 상담 기술이 포함된 기본적인 상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상담 내용 비밀 유지를 위해 타인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서명을 해야 활동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학교나 교육청이 또래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 필요

(1) 은둔형 외톨이 조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 위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먼저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은둔형 외톨이의 수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정확한 통계를 낸 후 은둔형 외톨이 규모에 걸맞은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최근 고립·은둔 청년의 수를 조사한 두 기관의 결과를 보면 그 수가 두 배 넘게 차이 난다. 먼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2022년 5월 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2 청년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24만 7000명 정도로 추정되고(서유미, 2023.03.07.),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전국 19~39세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립·은둔 청년은 전체 응답자의 5%였다. 이에 복지부는 전체 고립·은둔 청년 규모를 약 51만6000명으로 추정했다(신재은, 2023.11.03.).

여러 기사 본문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걸 보면, 국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지원정책을 설계할 법도 한데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도는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에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수도 통계 내기도 했는데, %(퍼센트)로 나타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로 보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부터 히키코모리 수를 취합하여 전국 현황을 추산하고,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히키코모리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성하면서 지역별, 인종별, 성별 등 세부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이순성·박지선, 2022:65).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2) 보건복지부의 정책 보완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 히키코모리 대책추진사업을 확충해 간 것과 같이 후생노동성과 같다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가는 게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관인 대한민국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2006년에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 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무려 17년 전 발표된 것이다. 이후 정부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축해 갈 것이라는 계획만 발표했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 내 정책 중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의 심리 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할 수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존재하긴 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2022.06.28.). 이 사업의 대상을 중장년과 노인층까지 확장해 은둔 생활을 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므로 이에 걸맞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가야 한다고 본다. 밑에 나올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은둔형 외톨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쳤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예상 내용 중 일부이다.

- ▶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자체 내 은둔형 외톨이를 식별 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지역 복지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 **심리상담 팀 구성:** 다양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를 모아 팀 구성 →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 가도록 도움.
- ▶ **심리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부터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을 개발함. 예를 들어 심리상담, 치료적 예술활동 등 심리 서비스 지원.
- ▶ **체육활동 프로그램 시행:**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참여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이러한 방식으로 부서에서 지역사회, 비정부 기구(NGO),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정신보건 복지 분야, 취업 지원 분야, 농림수산분야, 소비자 행정 분야 등 분야별로 나누어 연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민간 차원의 사업보다 더욱 큰 규모의 정책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과 정부 부처, 민간 등 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수정하면 다양한 연령층의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단 두 곳뿐인 점에서 우리나라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피의자들이 모두 은둔 생활을 했던 공통점이 발견되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애초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사조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 방안을 설계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완성된다면, 점차 은둔형 외톨이의 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자체들 또한 자동으로 은둔형 외톨이 대책 방안의 방향성을 정부와 동일시하게 될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제대로 된 계획이 구축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가 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제도의 우수사례를 잘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 특히 상담 시스템 쪽에서 큰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은둔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앞서 제시한 비대면 또래 상담 애플리케이션 ‘벗이랑’은 여태껏 보지 못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신선함을 더해 주는 동시에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도 관심을 두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중요한 것이 앱 개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앱 홍보와 많은 또래 상담가가 투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이후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다면 점차 은둔형 외톨이의 수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운영뿐만 아니라 앞에 제시한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모든 연령대의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해 간다면, 은둔형 외톨이들의 사회 복귀와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며 사회적 문제를 완화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성아, 노현주, 김문길, 곽윤경, 임덕영, 신영규, 함선유, 송치호,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2021-088, 국무조정실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p.154.
- 정세정,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해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22-109, 국무조정실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p.428.
- 윤철경, 「학교 밖 청소년의 사각지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예방을 위하여」, 『월간 복지동향』, 제295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3.05, p.6.
- 이순성, 박지선, 「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체계 현황과 시사점」, 『서울시복지재단』, 70, 서울시복지재단, 2022, p.35, pp.57~59, p.65.
- 정근하, 노영희,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출현 배경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26, 한국비교정부학회, 2022, p.231.
- 정근하, 노영희, 「지방의회 은둔형 외톨이 조례안 비교 연구 - 6개 시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회』, 제36권 제2호, 한국비교정부학회, 2022, p.219.
- 김혜원,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특성 및 은둔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9권 제10호, 한국청소년학회, 2022, p.2.

2. 기사 및 칼럼

- 박진우, 2023.03.13., 「국내 은둔형 외톨이 ‘40만’ 지원은 걸음마 단계」, 『고대신문』.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0624> (검색일: 2023.10.17.)
- 서유미, 2023.03.07., 「"전국 '은둔형 외톨이' 24만명 추산"..정부 첫 실태조사」,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07500184> (검색일: 2023.10.18.)
- 전혜진, 2023.07.31., 「은둔청년 10명중 6명 “방 나섰다 적응 실패... 다시 고립상태 빠져”」, 『동아일보』.
https://kyf.or.kr/user/boardDetail.do?bbsId=BBSMSTR_00000000349&nttNo=6431 (검색일: 2023.10.18.)
- 김빛나, 2023.05.29., 「청년 한정된 은둔형 외톨이 정책...“지원 연령 확대해야” [중년 은둔형 외톨이]」 『헤럴드경제』

-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526000697> (검색일: 2023.11.16.)
 신재은, 2023.11.03. 「전국 고립·은둔 청년 51만6000명 추정...무엇이 그들을 방에 가뒀나」, 『머니투데이』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0110397865444> (검색일: 2023.11.16.)
 김형선, 2021.08.06., 「"IMF 경제위기 때 외톨이된 이들, 이제 40대 접어들어"」, 『내일신문』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95164 (검색일: 2023.11.18.)
- 권영웅, 2022.10.17., 「"은둔형 외톨이 탈출구, 상담횟수 제한 없애야"」,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143> (검색일: 2023.11.18.)
- 윤찬영, 2018.05.07., 「'노인들을 위한' 에어비앤비, 늙는 건 슬프지 않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1136
 (검색일: 2023.11.24.)
- 김지영, 2023.02.14., 「[경제프리즘] 사회적 고립 해소 대안 '관계 복지'」,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213580326> (검색일: 2023.11.24.)
- 김동규, 2022.07.07., 「광주에 전국 최초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생긴 이유」,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8293
 (검색일: 2023.11.24.)
- 남경아, 2023.04.06., 「[겨를] '두더지 땅굴'을 아시나요」, 『경향신문』
<https://v.daum.net/v/20230406030304145> (검색일: 2023.11.24.)

3. 웹 페이지

- 통계청, 「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망 (13세 이상 인구) (2023.11.1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1R&conn_path=I2
- [세상을 바꾸는 조례_12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3.01.10.) <http://firiall.net/report/416>
- 보건복지상담센터 질문과 답변 (2022.06.28.) <https://www.129.go.kr/faq/pfaq02.jsp?n=9770>